

'좋은 책'을 위한 출판진흥정책

김수경 열음사 대표

현대사회는 인류가 역사 이래 경험해온 것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혁명과 전기의 발명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난 뒤 과학의 첨단화는 눈부서서 한 개인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이런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을지언정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 급격한 변화는 인간을 서로 소외시켰으며 어떤 철학적 혹은 정치적 신념을 지키면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학술서적이거나 예술·문화론서적을 출판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다. 책의 수명이 나날이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 하나의 학술적 신념 혹은 이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힘들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용어로서의 의사

소통만 남아있고 전문인 끼리끼리 소집단화되어 버린 언어구조는 그런 일상적 언어에 기댄 대중문화만이 폐쇄회로에 갇힌 현대인 사이를 쉽게 유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지난 몇년간의 소위 베스트셀러의 동향을 보면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쓰느냐하는 문제에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것 같다. 학술서적이거나 예술작품들은 일반인들의 언어구조가 아닌 일종의 암호구조처럼 난해하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저 권위있는 서가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점점 그 수요는 줄어들어간다는 것이 사회과학서적 혹은 창작예술작품들의 발행 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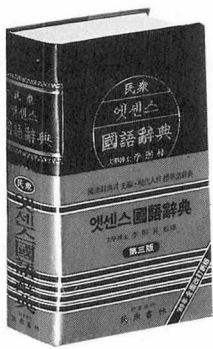
문예진흥원이나 학술진흥원이 있어서 창작기

금, 학술기금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관료적인 행정, 작가를 소수에게만 작품 위주가 아니라 다른 척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주어지고 또 연구비란 명목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지원금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기껏 1000부도 안되는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서적출판은 대학출판사나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출판사의 경우 그 책이 그 나라의 지적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공공도서관이라는 확실한 시장을 확보해주고 있다. 대학출판사가, 대기업 신문사나 단행본출판사가 함직한 베스트셀러나 전집류를 기획하고 있는, 또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청계천에서 텀퍼서적을 트럭으로 사들여 장서숫자를 맞추는 우리 실정에서는 불가능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학술·문화서적 출판에 대한 진흥책이 시급하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책보완과 창작기금, 학술기금에 준하는 재단설립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의 '정신적 가치 창출'에 대한 몰고가기로서의 투자유발도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월 3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1호(10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춘 독자중 5명을 추천, 민중서림에서 펴낸 「옛센스國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기술된 구한말 우리 역사에 관한 책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조선의 사정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책으로 꼽히는 「하멜표류기」(1668) 이후 외국인들에 의해 씌어진 한국관련저서는 특히 구한말을 맞으며 여러권이 쏟아져나오게 되는데,

이 책들은 당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국인에 의한 객관적 현장기록이란 점에서 개항으로부터 일제식민지시대에 이르는 기간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에 '가'항의 각각의 책에 맞는 해제를 '나'항에서 찾아 서로 짝을 지어주십시오.

가. 책이름

- ①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1906)
- ②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1908)
- ③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 1882 초판·1907 개정판)
- ④ 「조선건문기」(Things Korean, 1908)
- ⑤ 「한국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 1919)

나. 해제

- ① 의사이자 외교관으로도 활약했던 알렌이 22년간 한국에 살면서 사권 사람과 겪은 일의 단편을 모은 책으로 구한말 민간풍속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 ② 런던의 「테일리메일」지 극동특

파원이었던 맥켄지의 저술. 천주교박해와 제너럴사면호 사건 등에서부터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저술했다.

③ 1860년대부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의 구한말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종의 밀명으로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기도 했던 知韓派선교사 헐버트의 저술.

④ 일본의 학정에 대한 세계언론의 환기를 위해 파리평화회의를 겨냥하여 나온 책으로, 3·1운동의 객관적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크다. 켈달 저.

⑤ 서양선교사 그리피스가 쓴 한국사. 고대·중세사, 정치와 사회, 근대·현대사의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근대·현대사편의 경우 한말 외교사의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67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7호(8월 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26통, 이중 정답자는 2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

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⑤ 신위(신위는 그림의 김홍도, 글씨의 김정희와 함께 조선 후기 시·서·화의 '三絶'로 꼽힙니다)

문제2

② 오동나무

문제3

① 도리화 ② 녹음방초 ③ 향국단풍 ④ 설중매향

당첨자

이현숙(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177)

안영희(서울 종로구 세종로1번지 문화재연구소)

이동근(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광명 APT. 32동 304호)

박병배(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고등학교)

최향숙(충북 태안군 태안읍 태안중학교 서무과)

출판저널

통권 제69호/1990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鄭嶽嶽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臺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李燦天 崔炳天 金允淳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나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회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사정의원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炳翼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昊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鍾慶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暉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鄭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產
(가나다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계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